로컬플러스

군산시, 새만금 수질개선 위한 '맑은 물이 흐르는 강 만들기' 행사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하천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지역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군산시는 지난 19일 새만금수계의 주요하천인 성산면 고척천 일원에서 청소년 및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맑은 물이 흐르는 강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고척천 발원지인 성산면 창안제 생태탐방과 함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동자개·참붕어 등 토종어류 방류, 수질정화 및 개선을 위한 EM흙공 던지기, 하천 주변 쓰레기와 부유물질 제거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산시 관내 인문·사회와 함께 하천현황 등을 담은 자료집을 제작 배부해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하천 및 수질관리의 중요성, 다양한 수생태계 현황 등 이론과 체험이 겸비된 환경교육을 통해 지역환경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치안간담회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는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대국민 치안만족도 향상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 생활안전협의회 및 중앙지구대 경찰관 등 47명과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치안간담회는 긴밀한 민·경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생활안전협의회는 그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내 각종 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 등으로 익산의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날 김성중 익산경찰서장은 그간 중앙지구대 관내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동참해준 생활안전협의회 이용규회장, 장양원총무, 문희재무에게 감사장을 전달했고, 김태균 회원을 신규 위촉 하여 생활안전협의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경찰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시설 점검 · 단속활동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점검 및 단속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이는 지난 16일 새만금방조제에서 보행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12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8명 중 5명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로 보행자 교통안전활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

이에 따라 경찰은 횡단보도 주변 조명등, 보행자 신호시간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보행자 보호활동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김동봉 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난 3년 대비 대폭 감소했으나, 11월부터 12월까지 보행자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한다는 분석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농기센터, 배산 환경정화 활동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고 있는 소비자연구회는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배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올해를 마무리하며 익산시민들의 치유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배산을 깨끗한 쉼터로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회원들은 배산 체육시설 주변과 등산로를 따라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배산체육공원을 돌며 깨끗한 배산 만들기에 앞장섰다.

소비자연구회 황순자 회장은 "익산시민들이 사랑하는 배산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농업연구회는 2003년에 조직되었으며, 매월 모임을 갖고 건강한 농촌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과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장산단연안도로 공사

주민 시공사 갈등 준공 차질

사업 추진과정서 발생한 소음 · 주택 균열 등 피해 보상금 불만

8년째 진행 중인 군장산단연안도로 공사가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올 연말 준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군장산단연안도로 공사는 총 사업비 482억 원(국비)을 투자해 군산시 구암동~금암동 구간 1.5km를 폭 35m 6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2월 착공, 당초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새만금 내부개발 매립토 운송방안추진과 경포천 입구 교량 높이, 보상 문제 등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설계 변경을 통해 2013년 9월 공사가 재개돼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며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중동 일대 20여 가구 주민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미세먼지, 주택 균열 등 수많은 피해와 관련 시공사측의 보상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위한 '연안도로 공사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신고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국가사업이란 이유로 수년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주민에게 시공사측이 제시한 보상금은 상식 밖의 수준"이라며 "납득할 만한 보상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반발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시공사측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보상금 산정액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사측 관계자는 "이 일대 주택들은 이미 40~50년 된 노후 건물로서 주민들의 피해는 이해하지만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상금을 산정한 만큼 본사 차원에서도 최대한 반영한 금액"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의 집회와 공사방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주민들도 무조건적인 요구가 아닌 마음의 문을 열고 협상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군산=문정곤기자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개통

국토관리청 시행 중인 1160m 구간 연말 개통 예정

익산시는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가 개통됐다.

지난 18일 오후 2시경 KTX익산역 광장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해 이춘석 국회의원, 김정수 익산시의회 부의장, 황현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성중 익산경찰서장, 김도종 원광대학교 총장,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중앙지하차도 공사는 철도 이용객 편의와 모현 신시가지 차량정체 해소, 구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기존 왕복 2차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한 사업으로 총 465억원이 투입돼 2014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추진됐다.

이번에 개통되는 익산 중앙지하차도는 636m 전 구간과 서부역사 진입로 일부 207m구간이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1,160m 구간은 연말에 개통될 예정이다.

중앙지하차도 개통으로 일일 20,000여대의 통행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잔여 구간까지 완전 개통이 되면 익산의 동·서축을 잇는 새 동맥으로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물류 중심도시로 새롭게 거듭나게 할 전망이다.

이날 개통식에는 육군 부사관학교 군악대와 시립풍물단이 국악공연을 하며 시민들의 흥을 북돋고, KTX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개통관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주요 내빈 기념사, 테이프 커팅, 개통 시운행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정헌율 시장과 이춘석 국회의원은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중앙지하차도 개통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받아 눈길을 끌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막대한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던 중앙 관계 부처를 상대로 적극 중재로 협의를 이끌어 냈던 소회를 밝히고 "그 당시 도움을 줬던 이춘석 국회의원과 관계부처 관계자, 그리고 힘을 보태줬던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7년 동안 불편함을 감내해준 익산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송학현대 아파트 사거리~산업도로 잔여 구간도 조기에 개통 될 수 있도록 익산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전북서부보훈청, 故최익렬 선생 건국훈장 전수

호남 여러 의병 진지 참여 물심양면 의병투쟁 지원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고창 출신으로 새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故최익렬 선생의 손자이신 최윤호씨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故최익렬 선생은 호남의 여러 의병 진지에 직접 참여하고 물심양면으로 의병투쟁을 지원하였으며 1906년 의병결성을 계획하고 동지 10명과 함께 면암 최익현 선생이 이끄는 태인의병에 가담하려가 면암의 체포로 무산되었다.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전북고창 등지에서 기삼연, 전해산 부대에 참여해 병력 모집과 재정지원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의병지원에 앞장섰다.

일제 강점기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해 1914년 독립의군부 참모관, 1920년에는 대한광복군정사 전라도 부재무부장에 임명됐다.

최익렬 선생에 대한 포상 전수는 전북보훈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도지사 전수로 이루어 졌으며, 유족 최윤호씨는 "오랜 기간 선조의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되어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구국을 위해 노력하신 호국영웅으로 늦게라고 공로가 인정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을 전후로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많은 애국지사를 추모하기 위해 망국일인 11월 17일로 정해 순국선열을 추모해 온 날이다.

이번 제 77회 순국선열의 날에는 유족이 확인되어 전수되는 12명의 중 최익렬 선생은 전북에서 유일한 포상자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마을세무사 제도 '호응'

군산시가 시행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민들에게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등 경제적인 상황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고민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상담 유형은 과세·면세사업,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김민선씨는 과세와 면세사업, 겸업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창업을 준비 중인 이찬호(씨에게는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담을 통해 까다롭고 부담스런 세무문제를 해결해줬다.

마을세무사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군산시 홈페이지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마을세무사 명단 및 연락처를 확인 후 전화·팩스·전자우편 상담과 필요할 경우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대면상담을 할 수 있다.

오길환 군산시 세무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양질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내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개최

군산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37개 지자체 중 '2017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임시회의 및 포럼 개최지'로 결정됐다.

군산시는 지난 16일 세종특별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201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제1차 연차 총회 및 아동친화도시 포럼에 참가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역점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협의회로, 아동친화도시 연차총회 및 아동친화도시 포럼, 아동친화도시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진행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서대원 사무총장의 추진 경과보고와 유니세프 본부 Andres Franco 부대표의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아동권리담당 Marta Arias의 'CFC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가 이뤄졌다.

연차회의 주요 안건은 2017년도 지방정부협의회의 추진사업 결정,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연회비 등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내년 9월 열릴 지방정부협의회 임시회의 및 포럼 개최지로 전북 군산시가 결정됐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어린이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어 민선6기 공약인 어린이행복도시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친화 우수사례 공개, 자문 등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하며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서해대 총장공모 이사회 이후로 연기

서해대 이사회가 횡령사건에 연류된 전 A총장을 지난달 해임하면서 신임 총장 공모에 관심이 쏠렸으나, 총장 공모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내달 열리는 이사회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달에는 서해대 교비 횡령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으로 판결 이후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장 대행은 사직서를 낸 이윤채 전 총장대행 대신 이송재 교수가 새로 선임됐다.

또한 서해대 이사회는 도립대학으로의 전환을 타진하는 한편, 제3자 영입의 가능성도 열어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대 관계자는 "서해대는 현재 인문사회대학계열 과가 많아 취업에 특화된 학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올해 8월로 예정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 이상을 맞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대는 횡령사건이후로 직원 13명을 구조조정하고 횡령금액을 일부라도 환수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나운3동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일환

배진두 군산지사장, 관여산마을 명예통장 위촉

군산시 나운3동은 지난 18일 서군산농협에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전기안전공사 배진두 군산지사장을 관여산마을 명예통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행사는 나운3동 및 농협 관계자, 전기안전공사 직원, 마을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촉식에 앞서 전기안전공사는 관여산마을의 전기안전을 위해 전기배선을 점검하고 노후 위험 전기설비를 교체했다.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는 기관· 회사와 농촌마을이 결연을 맺고 CEO를 명예통장으로,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위촉해 고령화 추세인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일손 돕기, 농산물 홍보 및 구입, 환경정화활동, 정기적인 전기설비 점검 등 마을 활력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여산마을 신종진 통장은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마을에 젊은 주민들이 생겨 큰 힘을 얻은 것 같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노후 전기배선을 전부 교체해 줘 겨울철 화재발생 걱정을 덜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컨트리클럽 내년부터 카트 사용료 무료화

국내 최대 81홀을 보유한 군산컨트리클럽(이하 군산CC)이 내년부터 카트 사용료를 무료화 하는 등 골프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고 나섰다.

군산CC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골프카트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골프장 가운데 카트 사용료를 일시적 이벤트로 받지 않는 경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하는 곳은 군산CC가 처음이다.

군산CC 이사회 관계자는 "내부 격론이 있었지만 라운드 비용을 낮춰 골프 대중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군산CC는 카트 무료화 초기에는 연간 40억~50억원 안팎의 매출 및 이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골프 라운드 문턱이 낮아지면서 내장객 수가 늘어나고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트 사용료가 무료화 되면 1인당 라운드 비용이 2만원씩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군산CC는 이와 함께 주중 7만~8만원, 주말 10만~13만원인 그린피를 전체적으로 1만원가량 낮출 계획이다. 군산CC에서 라운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카트비를 합쳐 평균 3만원 정도 저렴해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2인승 카트를 도입해 친구나 부부 골퍼들이 선호하는 '노캐디 2인 골프'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며, 카트를 타고 페어웨이를 맘대로 누비고 다닐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